

제2절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

- ❖ 마일리지란 항공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, 해당 항공사를 통한 항공기 이용 거리(mile, 마일)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임.

1. 마일리지 적립에 관한 사항

- ❖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는 운항이 완료된 항공편에 대해 탑승 구간별, 예약 등급에 따라 적립됨.
 - ▶ 탑승 구간별 마일은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의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, 중간 경유가 있는 항공편의 경우 공유지와 상관없이 항공권상 출발지-최종 목적지를 기준으로 적립됨.
 - ▶ 동일 탑승 클래스(일등석, 비즈니스석, 일반석) 내에서도 항공권 구매 조건에 따라 예약 등급이 상이한데, 항공사들은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일부 예약 등급은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함.
- ❖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구매한 보너스 항공권,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, 마일리지 적립 불가 조건의 할인 항공권 등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없음.
- ❖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,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됨.
 - ▶ 대한항공의 경우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, 공식적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됨.
 - ▶ 아시아나항공은 회원 자격에 따라, 매직마일즈 및 실버, 골드 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'탑승일' 또는 '적립일'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, 다이아몬드 이상 우수회원 자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'탑승일' 또는 '적립일'로부터 12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함.

- ▶ 2008년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음.
- ▶ 마일리지의 소멸예정일은 항공사 홈페이지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.
- ❖ 저비용항공사 중 제주항공, 진에어, 에어부산도 LCC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유효기간은 1~5년 정도임.
 - ▶ 제주항공은 항공권 구매 금액의 5%를 “리프레시 포인트”로 적립하여 주며 유효기한은 탑승일 기준 3년임. 포인트는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사전 좌석 선택, 사전 수하물 구매, 기내식 주문 등에 사용됨. 포인트를 따로 구매할 수도 있으며, 이 경우 유효기한은 구매일 기준 5년임.
 - ▶ 에어부산은 2014년 1월1일 탑승 항공편부터 자동 적립되는 “FLY & STAMP” 제도를 운영중이며, 유효기간은 탑승일로부터 1년임. 지급기준은 노선별로 1개부터 5개까지 상이함. 스탬프를 구매할 수도 있으며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미니스탬프를 얻을 수 있음.
 - ▶ 진에어는 “나비 포인트” 제도를 운영중이며 2012년 7월 17일 이후 출발 항공편부터 적용되었음.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3년이며, 지역 및 노선별로 적립되는 포인트가 상이함. 보너스 항공권은 국내선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.
- ❖ 마일리지 적립이 확인될 때까지 항공권 영수증 및 탑승권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, 탑승 전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못했다더라도 고객센터, 홈페이지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후 적립이 가능함.
- ❖ 공동운항편 이용 시, 항공권이 판매한 항공사의 편명으로 발권된 경우에만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함.
- ❖ 얼라이언스에 가입된 항공사의 경우, 해당 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(제휴항공사)의 마일리지로도 적립이 가능함.
 - ▶ 여객은 어느 항공사의 마일리지 계좌로 마일리지를 적립할지 선택할 수 있음.
 - ▶ 제휴항공사 탑승 시, 해당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기준이 적용됨.
- ❖ 항공편 이용 이외에도 제휴 신용카드 이용을 통해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음.

- ▶ 또한 항공사가 제휴하고 있는 호텔이나 렌터카, 기타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함.

2.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

- ❖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임.
- ❖ 보너스 항공권은 해당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, 타 항공사 항공기로 운항되는 공동운항편의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.
 - ▶ 보너스 항공권 이용 시 공제 마일리지는 운항 구간, 좌석 등급, 성수기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함.
 - ▶ 보너스 항공권 발생 시 발생하는 세금, 유류할증료, 수수료 등은 항공권 사용인이 부담해야 함.
 - ▶ 보너스 항공권 발급 이후 변경 및 환급 절차는 항공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발급 전 확인이 필요함.
- ❖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시, 예약 등급에 따라 좌석 승급이 가능한 조건으로 발권된 항공권에 한해 이용이 가능함.
 - ▶ 공제되는 마일리지는 운항 구간, 성수기 여부, 승급하려는 좌석 등급 등에 따라 상이함.
 - ▶ 좌석 승급은 일반적으로 차상급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석 항공권을 바로 일등석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음.
 - ▶ 좌석 승급 시 좌석승급을 적용한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능함.
 - ▶ 좌석 승급을 환불하려는 경우, 환불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마일리지로 환급되며 이는 항공권 환불 시 적용되는 위약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임.
- ❖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항공사가 제휴한 호텔, 렌터카 및 상업시설 이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음.
 - ▶ 대한항공의 경우 서귀포 KAL호텔, 그랜드하얏트인천, KAL 리무진 서비스

등을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음.

- ▶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CGV나 메가박스 영화 예매, 금호리조트, 스파비스, 금호아트홀 등 이용 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음.
- ▶ 또한, 일부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통해 초과 수하물 요금, 라운지 이용 요금 등 항공편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요금에 대한 지불을 허용하고 있음.

3. 국적항공사 마일리지 및 기타 정보 업데이트

가. 대한항공

- ❖ '20년 4월 1일 이전 발매, '20년 3월 4일~ '21년 12월 31일 사이 출발 항공권(보너스 항공권 포함)에 대하여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및 환불 위약금 면제
 - ▶ '20년 4월 1일 이후 항공권 구매하였다도 추후 특정 국가의 출입국 제한으로 승객 여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
 - ▶ 보너스 항공권 환불 시 소멸된 마일리지는 '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
- ❖ 모닝캄 클럽 자격 1년 연장, 자격유지 조건 미충족하여도 유지
- ❖ '21년 말 만료 예정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
- ❖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 2년 연기, '23년 실적 기준으로 '24년 2월부터 적용
 - ▶ 평생 우수회원(모닝캄 프리미엄 이상) 달성 기간 '24년 말까지 연장
 - ▶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 변경은 '23년 4월로 연기

나. 아시아나항공

- ❖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국가행/국가발 항공권에 대한 환불 위약금, 유료좌석 환불 수수료, 재발행 수수료(2회 한정) 면제
- ❖ 아시아나클럽 우수회원 자격 유지 기간 1년 연장 (기존 24개월→ 36개월)

- ❖ '21년 1월 1일 0시 소멸 예정 마일리지 1년 연장
- ❖ 국내선 발권 수수료 신설
 - ▶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 및 시내/공항 지점에서 항공권 발권 또는 변경 시 편도 1인당 5,000원(부가세 포함) 부과

다. 제주항공

- ❖ 항공권을 리프레시포인트로 대체 환불 시 환불금액의 10% 추가 포인트 적립 (단, 대체환불 적립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, 10% 추가포인트 유효기간은 1년)

라. 에어부산

- ❖ '19년 4월 1일~'20년 3월 31 사이에 적립된 모든 스탬프 '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연장
- ❖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선 카운터 체크인 수수료 1인당 3000원 부과 ('20년 9월 1일부터)
 - ▶ 유아 동반, 장애인, 임산부 손님 등이 체크인하는 경우 또는 예약 변경, 현장 구매를 위해 체크인하려는 경우는 예외

마. 에어서울

- ❖ 민트패스 회원권 유효기간 1년 연장
 - ▶ 민트패스 1회 이상 사용하였으며, 유효한 패스권 소지한 경우에 한정